참담과 숭고
— 서정주의 만주 체험

박수연*

Ⅰ.서론-회고의 의미론
Ⅱ.유토피아적 이향과 현실 탈출
Ⅲ.이상 상실과 귀향
Ⅳ.결론-귀향의 내면과 국가

〈국문초록〉

이 논문은 서정주의 시세계에서 그의 만주 체험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서정주는 1940년 가을에 만주로 이주했고, 1941년 봄에 조선으로 귀국했다. 이 경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식민주의적 시선이다. 본고는 그 시선을 식민지적 숭고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서정주는 하얼빈이라는 도시에 주목했는데, 이 도시의 운명은 곧 혁명의 운명이기도 했다. 만주에서 절망한 서정주는 조선으로 귀국한 후 친일시인으로 변모했다. 이는 개인적 미학을 탐색하는 시인이 만주에서 절망하고 국가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서정주는 이후 국가에 순응하면서 미학주의자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했다.

주제어 : 만주, 숭고, 식민지, 국가, 미학

* 충남대학교 교수

Ⅰ. 서론—회고의 의미론

미당 서정주(1915~2000)가 만주에 건너간 때는 1940년 가을이고, 조선으로 귀국한 때는 1941년 2월이다. 그는 시 「만주에 와서」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다. “1940년 11월인가부터 다음에 2월쯤까지의 한겨울동안만 나는 만주제국 양곡주식회사의 간도성 용정출장소에 취직해 있다가 결국은 비위에 안 맞아 작파해 버렸었다.”[1] 이 회고에 따르면 서정주는 대략 4개월 정도의 만주 생활을 경험한 셈이다. 그런데 이 시기를 회고하고 있는 또 다른 시 「만주제국 국자가(연길)의 1940년 가을」에는 서정주의 만주 생활이 1940년 9월부터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1940년 9월에서부터 1941년 2월까지 나는 남만주 간도성의 양곡주식회사의 한 사원이 되어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서정주 연구자들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서정주 자신이 범하고 있는 이런 혼동 때문인 셈이다. 가령 김학동이 쓴 『서정주 전기』(새문사, 2011)는 1940년 11월에 서정주가 만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글들을 종합해보면, 서정주가 만주로 간 것은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1940년의 가을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이행하는 계절 감각이 그의 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밤에는 E. A. 포우를 읽고, 낮에는 부랑하고 다니는 동안 겨울이 되어 나는 만주양곡주식회사라는 아주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그는 「만주광야에서」(『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에 써 두었다.

이 만주 행적과 관련한 서정주의 시편들은 주로 그의 산문 「만주광야에서」를 저본으로 삼아 씌어진 것들이다. 특히 시집 『늙은 떠돌이의 시』(민음사, 1993)에 실린 다섯 편의 만주 시편은 바로 산문 「만주광야에서」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장르 종만 바꿔 시로 만든 것이다.[2] 이 외에도 만

1) 서정주, 『서정주 전집2』, 민음사, 1994, 484쪽. 이 시가 처음에 수록된 시집 『안 잊히는 일들』은 1983년에 현대문학사에서 출판되었다.

2)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만주제국 국자가(연길)의 1940년 가을」 「일본헌병 고

주 이주 전후의 정황을 그리고 있는 시편들 역시 그의 산문들에서 차용해 온 회고이다. 『팔 할이 바람』(1988)의 「큰 아들을 낳던 해」는 만주 이주의 배경을 그리고 있고, 「만주에서」는 만주의 풍경과 직장생활을, 「뜻 아니한 인기와 밥」은 귀국 전후의 정황을 그리고 있다.

어떤 에피소드나 기억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에피소드나 기억이 여전히 강렬한 에너지를 주체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서정주의 만년의 시는 대부분 그의 과거에 대한 회고 차원의 그것이다. 반복이 새로운 의미의 생성에 연관된다면 회고는 단순한 복고 바로 그것에 연관된다. 많은 경우 이미 산문을 통해 진술되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그다지 압축적이지 않은 시형식으로 재진술하고 있는 그 회고 취미의 의미를 낱낱이 분석해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엇인가 되풀이되어 서정주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로 하자. 그리고 그의 '만주 행적'도 되풀이 회고되고 있는 사안들 중 하나이다. 이 사실이 달관연하는 노시인의 단순한 회고취미와는 다른 어떤 것, 즉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관적 선택행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고 싶은 것,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할 것만 보려하는 시인의 자의적 선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정주의 만주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그의 기억 속에서 선택하는 의미화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 이외에 그 선택에 의해 왜곡되고 배제되는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그러므로 서정주가 만주로 건너간 즈음의 작품을 징후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기억의 착종과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40년을 전후로 발표된 작품만이 그의 문학적 지향점을 그나마 정직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서정주가 만주에서 쓴 작품 세 편과 그 작품에 연동되어 사후적으로 씌어진 산문, 그리고 그 산문에 기댄 몇 편의 작품을 분석하여 일제 말기에 서정주의 문학적 행보를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만주에서 서정주

쌍놈의 새끼」「간도 용정촌의 1941년 1월의 어느 날」「북간도의 청년 영어교사 김진수 옹」「시인 함형수 소전」.

가 쓴 작품은 「만주에서」 「멈둘레꽃」 「무제」 세 편이다. 이 작품들과 함께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 씌어진 작품들도 필요에 따라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서정주에게 만주는 무엇이고, 그 만주 경험은 그의 이후의 문학적 행로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그것은 서정주가 귀국한 이후의 문학적 내면에 작용하는 국가주의적 그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Ⅱ. 유토피아적 이향과 현실 탈출

서정주가 만주로 이주하던 때의 동북아시아 시국은 엄중했다. 1940년 6월, 히틀러의 파리 점령은 서구적 근대의 몰락을 알려주는 결정적 신호탄이었다. 1940년 6월에 신체제 운동이 발표되었고, 7월에 대동아공영론이 선언되었다. 10월에는 조선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이 시국 속에서 서정주가 어떤 심리적 행보를 보여 주었는지를 정리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가 왜 만주에 갔으며, 왜 돌아왔는지 알려주는 전거도 아주 소략하다. 중요한 것은 만주로 이주한 서정주의 심리적 행보를 아는 일일 터이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의 외적 행동일 텐데, 논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서정주의 회고는 "간도성의 한 고등관이 내 친구의 형이어서 그의 힘으로 경리과의 한 구석자리를 얻"[3]을 수 있었다는 사실 정도이다. 이것이 그의 만주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라면, 그의 만주행에 대한 배경제시는 1984년의 시집 『노래』에 수록된 「큰아들을 낳던 해」에 있다. 1940년 1월에 그는 고향에 머무르던 중 첫 아들을 얻고 8월에는 조선일보 폐간 기념시 청탁을 받는다. 그가 청탁서를 보고 시를 창작한 것이 신문 폐간 이후였기 때문에 그 시는 발표될 수 없었는데, "목아지여/목아지여/목아지여"라는 외마디 비명과 같은, 발표될 수도 없었던 기념시를 쓴 후 그는 만주로 떠난다. 그때의 심정이 「큰아들을 낳던 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

3) 서정주, 「만주광야에서」, 『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 53쪽.

하여, 나는 마침내 숨막히는 강산을 떠나기로 하고
이 해 가을 만주제국 간도성 연길이란 곳으로 갔는데,
무간지옥에서도 위선 솟을 구먹은 있는 것이라
…중략…
일본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피붙이 하나를 꼬아다
등극시키고
그들의 괴뢰정권으로 억지로 세운 이 아득한 땅에서
그리하여 나는 그 취직 자리라는 걸 겨우 하나 얻게 되었네.

만주로 가서 취업을 하게 된 연유를 간단히 정리해 놓은 진술이다. 행간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객관적 상황에 대응하는 시적 심리가 중요하다. "숨막히는 이 강산"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요컨대 서정주는 당시의 조선 현실을 견딜 수 없이 막혀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폐쇄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로 선택된 곳이 왜 하필이면 만주였을까?

서정주가 이미 탈향의 시적 상상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4] 그의 초기 시가 근대적 삶에 대한 전복적 상상의 결과이며,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바다」와 같은 시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애비와 에미를 잊고 형제와 친척과 동무도 잊어버린 후 계집까지 잊고 아라스카, 아라비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가라'고 외치던 시인은 드디어 자신의 닫힌 현실에서 탈주하여 만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탈향 심리의 최종적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희망 사항이 단순한 취직자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해볼 수는 있겠다. 만주는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근대적 유토피아의 한 정형으로 선전되고 상상되는 땅이었다. 만주로 건너가기 직전에 서정주가 쓴 시편들은 한편으로는 유장한

4) 김재용, 최현식, 홍용희 등의 연구가 있다.

언어 감각에 결합된 생명과 신성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탈향과 탈현실의 전복적 지향을 드러냈다. 이것이 한국 시사 속에서 유럽 상징주의에 연결된 1930년대 후반의 생명파에 대한 시각일 것이다.[5] 그 시적 전복의 상상이 보여준 지향점의 하나가 만주였으리라는 사실은 따라서 충분히 납득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30년대 후반의 서정주의 방랑 생활이 이와 연관된다면, 여기에 한 가지 덧대어 놓을 것은 그의 현실적 타협능력이다. 만주로 간다는 것은 닫힌 현실에서 탈출하여 이상을 쫓아가는 것이므로 잘 살러 가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현실성과 관련해서는 서정주의 민첩한 적응능력이 주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의 만주는 조선인 식자층의 노동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했었고, 이 정황을 서정주가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주국 건설 이후 이주해 살게 된 사람들의 조선, 중국, 일본인별 취업 현황은 조선인에게 가장 열악한 결과를 보여준다. 만주를 주로 돈벌이의 신천지로만 생각했던 것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조선인들이었다. 그래서 만주의 조선인들은 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유랑자들이었다. 1939년 북지전선 위문단의 일원이었던 임학수는 일본 사무관의 말을 빌려 중국 거주 조선인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이렇게 썼다.[6]

> 북지의 조선인은 대단히 평판이 나쁘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개괄적으로는 원인이 둘로 나뉘는데, 일은 조선인의 직업이 모히, 코카인의 금제품을 밀매하는 것. 이는 선량한 중국인에게 사기 공갈 등 불량한 행위를 하는 것. 북지 재주(在住) 약 4만명인데 대개는 만주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로, 9할 5분(分)은 표면 잡화점 등의 간판을 걸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대반이 밀매자이다.

5) 생명파의 대표자로서 미당의 만주행과 관련해서는 최현식, 「서정주와 만주」, 『미네르바』 2010년 여름호 참조.
6) 임학수, 「북지견문록」, 『문장』, 1939.7, 166쪽.

이 진술이 일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시선에 따른 과장된 면이 있을 것이라고 해도, 중국이나 만주를 배경으로 한 조선 작가들의 소설에서 그 상태가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최명익의 「심문」이나 북경을 배경으로 한 김사량의 「향수」가 그것이다.

또 이런 조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취업률이다. 취업은 학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업률은 일본인 60%, 중국인 52.4%, 조선인 21.1%였다.[7] 조선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취업률이 이렇다는 것은 일정한 지식을 갖춘 조선인의 수요가 더 필요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더구나 1939년 5월에는 米穀管理法 시행에 따른 '滿洲國米穀管理 大要方針'이 확정되어 시행되는 단계에 있었다. 그 방침 중 눈에 띄는 것을 적어둔다.

> 一.米穀管區는 관구를 단위로 가급적 관구내 생산미곡으로써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할 사,
> 一.미곡관구는 그 구역 내에 있어서의 米價의 평준화를 촉진시키고 장래 全滿一律의 米價設定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할 것.
> 一.미곡관구는 생산미곡의 품질개선급생산확보를 圖할 수 있도록 이를 정할 것,
> 一.관구는 신경, 봉천, 합이빈, 목단강, 연길, 흑하, 해납이, 열하의 팔개소로 함.
>
> 미곡관리법안 실시에 伴한 미곡 배급기구로서는 만주양곡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종래의 정미업자 도매업자 급 소매업자에 대하야 가급적으로 그 기능의 활용을 圖할 방침 하에 左의 방법을 정비함.
> *수출입 요망
> 一.미곡의 수출입은 양곡회사로 하여금 專혀 이에 當케 할 것.

7) 윤휘탁, 『만주국 :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2013, 158쪽 참조.

二.수입=(가)회사는 미곡 연도의 당초에 당해 연도의 미곡수급 추산을 행하고 공급량의 부족인 경우에는 이를 수입미에 俟할 것으로 하고 수입계획을 세울 것. (나)수입은 가능한 한 업별 평균적으로 행한다. (다)수입미는 지리적 관계 등으로 보아 가능한 한 조선미로 할 방침을 적당타 認함. 이로써 충족이 안되면 일본 내지미, 대만미 又는 지나미, 삼미기타 제삼국미를 수입함. (라)조선미 급 내지미는 회사 자체가 산지에서 매 부를 행하야 수입하기로 함. (마)제삼국미 급 대만미는 적당한 수입상으로 하여금 위탁수입을 행케 함.

이상의 만주미곡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이 만주국의 모든 미곡관리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준 국가기관으로서의 '만주양곡회사'이다. 회사의 주요 업무는 같은 관구 내의 미곡가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수출입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등의 국가적 사업이었다. 따라서 그 회사는 아무나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었다. 서정주는 친구 형인 간도성 고등관의 주석으로 만주양곡주식회사에 취직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곧 '만주양곡회사'이다. '대요 방침'에 나타나듯이 만주국 미곡관리는 여덟 개의 관구로 구분되어 시행되었고, 그 관구 중 하나가 '연길 관구'이다. 그 연길이야말로 서정주가 만주에 대한 기억에서 '국자가 거리의 곡마단과 가을 풍경'이라는 거의 최초의 사건적 장면을 재구하는 곳이기도 하다. 서정주는 처음에 이 연길관구 내의 만주양곡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곧이어 용정 지사로 발령이 났던 것이다. 서정주가 어떻게 만주양곡회사의 사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취업이 자기 가족의 호구책이 될 수는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조선미 만주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김성수 가문의 도움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당시 서정주의 부친이 마름 노릇을 그만두었던 때라고 해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추정을 통해 서정주의 만주행을 동기화하는 구체적 일상과

직업에 겹쳐서 밝혀져야 할 것이 당시의 서정주의 내면이다. 그의 문학이란 바로 그 내면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시인부락』(1936)을 주재하고, 제주도에서의 짧은 거주(1937.4~6)를 거쳐 고향에 돌아와 소일하던 서정주가 부모가 정해준 혼처를 따라 결혼을 했을 때, 이 시기의 서정주의 심리는 무위도식배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던 듯하다. 자학적 내면을 표현한 「자화상」(『시건설』 1939.10)이 이때 씌어졌고, 고창군청 경리과에서 잠시 근무하기도 했으며, 첫아들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무위도식하면서도 서정주가 집요하게 관심을 보인 것은 '탈향'과 '귀향'의 이중적 욕망이다. 일찍이 "애처와 가정을 버리고 서백리아를 유랑하는 만년 杜翁(톨스토이:인용자)의 질머진 걸망(布袋)은 훈장과 같이 빛나지 않는가"[8] 라고 탈향의 지향을 보여주었던 서정주는 동시에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싸늘한 돌담에 기대어 서면/사뭇 숫스러워지는 생각, 고구려에 사는 듯/아스럼 눈감었든 내 넋의 시골/별 생겨나듯 도라오는 사투리/…중략… /머잖어 봄은 다시 오리니/금女동생을 나는 얻으리/눈섭이 검은 금女 동생,/얻어선 새로 수대동 살리"(「수대동시」, 『화사집』)[9] 라는 귀향의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을 찾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이면에서는 전혀 모순이 아니다. 고향은 언제나 탈출해야만 할 끔찍한 현실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식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그 스스로 그의 고향에 대해 "이렇게도 유달리도 아늑하고 외진 곳을 나는 아직도 보지 못했다."[10]고 생각하면서도 그곳을 떠나려 한 것은 고향에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를 타향에서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터인데, 그 타향을 또 다른 고향으로서의 異鄕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서정주에게는 만주가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 복합적 심리가 서구적 근대에 대한 비판과 이향에 대한 추구를 결합시키고, 그 결합의 방향을 오족

8) 서정주, 「續畢波羅樹秒」, 『동아일보』, 1935. 11. 5.
9) 이 시는 『시건설』, 1938. 6에 처음 발표되었다.
10) 서정주, 「유산상속과 그 뒤에 온 것」, 『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 80쪽.

협화의 이상향인 만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은 충분한 내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의 탈향 의식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는 「바다」(『사해공론』 1938.10)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의 한 구절로서 '애비, 에미, 형제, 친척, 동무, 계집'을 잊고 "아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탈향의 이념뿐만 아니라 서구적 근대까지도 함께 극복하려 하는 주체의 욕망을 표상한다. 유럽 상징주의에 연결된 생명파적 언어들을 선보였던 시인은, 그 상징주의의 타락을 비판하는 「램보오의 두개골」(『조선일보』, 1938. 8. 14)에서 "램보오 끗끗내 귀향할 일이 아니엇다. 에미와 누이의 품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엇다. …중략… 극단—그러타.램보오의 길은 컬럼버스의 것과 가티 원형이여서는 안된다. 영구히 도달할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직선이여서 조앗슬 것이다. …중략… 램보오의 귀향은 자각이 아니엇다. 그냥 피곤하고 늙엇고 좌절했을 뿐이었다. 귀향하는 램보오는 임우 死灰의 시체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함으로서 귀향자 랭보에 대비되는 영원한 탈향의 이념을 표현한다. 이 글을 쓰는 서정주에게 떠나는 길은 돌아옴을 예비하는 길이 아니다. 돌아오는 것은 곧 패배이며 그 패배는 삶과 이상의 패배이다. 서정주가 만주로 이주를 감행했을 때 그에게는 랭보의 실패를 뛰어넘으려는 현실 탈출의 열망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다른 작품 「풀밭에 누어서」[11](『비판』, 1939.6)는 그 이향을 '봉천, 외몽고, 상해'에서 찾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진 이 시편들의 시적 지향은 주어진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지만, 전자 「바다」는 탈아시아의 호명이고 후자 「풀밭에 누어서」는 탈조선의 호명이다. 「바다」가 탈아시아적이면서 또한 탈서구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향되는 대륙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12] 그런데 「풀밭에 누어서」는 탈아시아

11) 이하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 인용은 최현식의 발굴본에 의거한다. 최현식, 『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가 아니라 같은 아시아 내부의 이향을 지향대상으로 삼는다. 요컨대 전자가 탈향이라면 후자는 그 탈아시아적 탈향 심리에 대비되어 오히려 아시아적 귀환을 상상케 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당시의 서정주의 복합적 심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좋은 참조점을 던져주는 것이다. 「풀밭에 누어서」는 그다지 널리 읽힌 작품이 아니므로 여기에 일부를 인용해 놓는다.

> 오늘도 할 수 없이 못가고 마렷다. 내일은 어떠케 떠나야 할텐데.....
> 우선 入質헌 옷이나 찾어 입고, 이원오십전 주고 고무바닥 헌 白短靴나 하나 사신고, 이발이나 좀 허고 목욕이나 좀 하고.....
> 오늘도 내가 풀밭에 누어서 혼자 생각하는 것은-
> (우리 둘의 행복을 위하야) 그런 것은 아니다 불쌍한 안해야
> **혹, 어쩌다가 담배나 잇스면, 북향의 창에 턱을 고이고 으레히 내가 바래보고 있는 곳은 국경선 박갓, 봉천이거나 외몽고거나 상해로 가는 쪽이지 전라도는 아니다.**
> 내가 인제 단 한 가지 기대가 남은 것은 아는 사람 있는 곳에서 하로바삐 떠나서, 안해야 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멀리하야, 낯선 거리에 서보고 싶은 것이지(성공하시기만).....아무리 바래여도 인제 내 마음은 서울에도 시골에도 조선에는 업을란다
> …중략…
> **고향은 항상 喪家와 같드라.** 父母와 兄弟들은 한결같이 얼골빛이 호박꽃처럼 누-러트라. 그들의 이러한 體重을 가슴에 언고서 어찌 내가 金剛酒도 아니 먹고 外上술도 아니 먹고 酒酊뱅이도 아니 될 수 있겠느냐!
> 안해야 너 또한 그들과 비슷하다. 너의 소원은 언제나 너의 껌정고무신과 껌정치마와 껌정손톱과 비슷하다. 거북표類의 고무신을 신은 女子들은 대개 마음도 같은가부드라.
> (네,네, 하로바삐 추직(就職)을 하세요) 달래와 간장 내음새가 皮膚

12) 이 사실에 대한 논의는 김재용, 「서정주-전도된 오리엔탈리즘」,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131-135쪽 참조.

에 젖은 안해. 한달에도 맺번식 너는 찌저진 白露紙쪽에 이러케 적어 보내는 것이나, 미안하다, 취직할 곳도 성공할 곳도 내게는 처음부터 업섯든 걸 아러라.
미안하다 안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직까진 시골에 버꾹새도 울꺼니까, 대추나무 밑에 麻布적삼이나 다듬든지, 親庭에 가잇든지, 또다른데 가잇든지, 그러케 하여라.
… 중략 …
안해야 너잇는 全羅道로 향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背面이리라. 나는 내 등뒤에다 너를 버리리라.
그러나
오늘도 北向하는 瞳孔을달고 내 피곤한 肉體가 풀밭에 누엇을때, 내 등짝에 내 脊椎神經에, 담배불처럼 뜨겁게 와닷는것은 그 늘근 어머니의 파뿌리 같은 머리털과 누런 잇발과 안해야 네 깜정손톱과 흰옷을입은무리조선말. 조선말.
…이저버리자!

— 「풀밭에 누어서」 부분(강조는 인용자)

고향은 상가와 같고, 시인이 지향하는 곳은 "국경선 박갓, 봉천이거나 외몽고거나 상해로 가는 쪽이지 전라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주 혹은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의 갈피는 그의 학생시절부터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결혼하기 전의 상상적 실행이었다면. 지금 그 상상은 한 편의 시로 표현되어 실행의 간절함을 더 곡진하게 만들어준다. 더구나 아내가 시인에게 보내는 말은 '성공과 취직'이지만 시인이 생각하는 것은 '아내를 떠나 홀로 낯선 거리로 가는 일' 결국은 '조선을 떠나가는 일'이다. 이 탈향 의식을 염두에 둘 때 서정주의 만주 이주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서정주의 만주 이주가 탈향 의식의 표현이라고 했지만, 온전한 탈향일 수 없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작품의 말미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늘근 어머니의 파뿌리같은 머리털과 누런 잇발과 안해야 네 꼄

정 손톱과 흰옷을 입은 무리 조선말. 조선말"이 그것이다. 시인은 이 진술 다음에 "이저버리자!"라는 말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램보오의 두개골」이 랭보의 귀향을 비판하고 있듯이, 가족을 잊어야 한다는 그 자기 다짐이야말로 탈향의 이념에 결말을 맺어주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잊음에 대한 자기 다짐은 잊을 수 없음의 전도된 표현이기도 하다. 「풀밭에 누어서」가 모종의 망설임과 선명하지 않은 내면으로 시종일관하는 것도 그와 관련될 텐데, 이런 의미에서 '탈아시아'의 지향을 보여주는 「바다」에 비해 「풀밭에 누어서」의 상상의 폭이 좁혀져 아시아 내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상징적이다. 탈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전환하는 심리는 끝내 가족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심리이기도 하다. 어쨌든 「풀밭에 누어서」는 당시의 서정주의 심리적 강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려주는 작품이다. 전진과 후퇴의 협곡 사이에서 내부로 폭발할 듯한 분위기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경험은 그가 일찍이 학생시위로 체포 훈방되고 그의 고향집에서 노잣돈을 들고 나와 만주행을 결심했다가 포기하는 정황과 유사하다. 그가 그 후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자기 실존적 고투의 내면으로 잠행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Ⅲ. 이상 상실과 귀향

그가 만주로 건너간 행위에는 그 내적 폭발의 기미가 잠재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동력을 발판삼아 만주에 도착한 가을의 국자가에서 그는 조선 곡마단의 공연을 관람했던 듯하다. 그런 그의 눈에 곡마단 공연보다 훨씬 더 빨리 비친 것은 만주의 풍경이었다. 「만주에서」(1940년 겨울)라는 시의 시작도 그렇거니와("이것은 참 많은 하늘입니다"), 만주를 회고하는 그의 산문 곳곳에서도 그 사실은 도드라진다. "만주 국자가라는 곳의 교외 벌판의 황막한 먼지흙" "이상의 「火爐」라는 글을 보면, 추위의 위력을 바다의 밀려오는 만조에, 또 큰 폭동에 비기고 있는 게 보이

지만, 만주의 그 넓고 깊고 무거운 추위는 그런 종류” “걸어가야 할 곳을 걸어가다가 뼈다귀들이 두루 강추위의 만조에 휩쓸리는 걸 충격 받을 때”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만주의 공동묘지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당시 서정주의 심리적 충격의 정도를 잘 말해준다.

> 만주의 그 광막하고 을씨년스런 荒野를 귀로써 듣고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은 저 한길가의 음악가들이 날마다 불고 켜 합주해내는 그 묘한 멜로디다. …중략… 만주벌판의 이 가락은 그저 우리 뼈다귀 속으로 무시무시하게 파고들어올 뿐, 딴 일은 없다. 아마 무엇보다도 뼈다귀가 세어야만 사는 데라서 이것도 이런 것인가. 이 멜로디는 키높은 고량밭 머리의 벌판에서 옆으로 포장마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되도록이면 황혼에, 또 공동묘지같은 걸 옆에 끼고 듣는 것이 효과가 있다.
>
> 공동묘지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만주의 공동묘지같이 처참한 실감을 주는 것도 이 하늘 밑에선 드물 듯하다. 관을 땅에 묻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벌판에 그대로 늘어놓아 둔 건데 여기 와서 엎어져 우는 통곡 소리가 또 우는 것하고는 영 아주 다른, 몸서리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죽은 이 앞의 곡이라는 것은 …중략… 육자배기 가락도 어느 만큼씩 섞이어 있기가 예사인 것인데, 여기 만주 것은 이것 역시 목의 살에서 울려나는 것이 아니라 꼭 뼈다귀를 긁어서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어느 아이의 관 앞에 엎드린 靑衣를 입은 중년여인의 울음소리였는데(자기 자녀의 주검 앞이라면 손윗사람의 관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기야 하겠지만), 끅! 끅! 끅! 끅! 하는 소리가 내 뼈다귀마저 긁어내는 것같아 도무지 오래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억센 뼈다귀로만 견디어 내다 보니 울음마저도 드디어 이렇게 틀이 잡혀 버린 것인가.
>
> —「만주광야에서」 부분

서정주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죽음과 이국적 장례풍경의 낯선 충격

이다. 이 충격의 경험이야말로 이후 서정주의 여러 글에서 두고두고 반복 서술되는 원인일 터이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식 주체의 이해능력을 벗어나는 숭고의 경험임에 틀림없다.[13] 이런 서정주의 만주 방문 기록이 만주의 황량한 풍경으로 주로 채워진다는 사실은 그의 만주 경험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강렬한 풍경의 양상이 이후 내내 서정주의 뇌리를 사로잡는데, 중요한 것은 그 풍경을 서정주의 주관에 의해 각색한다는 사실이다. 풍경은 그 각색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후에는 각색된 풍경이 하나의 객관이 되어 주관을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고진이 말했듯이, "풍경이 일단 성립되면 그 기원은 잊혀져 버"리고 이후에는 모든 것이 풍경에 의해 성립되는 것처럼 인식된다. 즉 "주관(주체)/객관(객체)이라는 인식론적 공간은 <풍경>에 의해 성립된 것"[14]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만주가 황막한 모습으로 서정주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미 만주를 그렇게 의미화하는 그의 황막한 심리를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고진과 관련해서 한가지 참고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1장의 끝에 덧붙여진 'afternote'[15]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단순히 내면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풍경, 즉 과거의 텍스트가 완전히 잠식하지 않은 풍경의 발견"에 대해 진술한다. "메이지 시대까지 그 남단까지밖에 일본인이 살지 않았던 북방의 섬 홋카이도의 발견"이 그것이다. 홋카이도의 발견에 해당할 만한 것을 서정주가 '만주'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 홋카이도가 처음 개척되는 땅이었다면 서정주가 도착한 연길은 이미 개척된 땅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개와

13) I.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249면 참조. 숭고란 "우리 판단력에 대해서 반목적적이고, 우리의 현시능력에는 부적합하며, 상상력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폭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숭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서정주의 만주 경험을 칸트의 숭고론으로 설명한 글은 윤은경, 「유치환 서정주의 만주체험과 시대의식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8. 참고.

14)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48쪽.

15) afternote는 영어판(1993)에만 들어 있는 것을 한국어 번역(1997년판)에 추가한 것이다. 위의 책, 56쪽.

개발의 차이는 물론 크다. 그러나 낯선 대상에 압도되는 경험은 미개와 개발의 차이가 아니라 감동의 강렬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홋카이도와 만주의 차이는 미미한 것일 수도 있다. 더구나 그 감동의 강렬도가 숭고의 의미로 작용할 때,[16] 필요한 것은 '숭고'를 형성시키는 힘의 근원이다. 그것은 물론 주관적인 직관 작용의 결과이다. 그런데 홋카이도나 만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숭고가 아니라 그 낯선 땅을 지배하는 욕망의 결과로서 '식민지적 숭고'에 대해 말해야 한다. 실제로 홋카이도나 만주 공히 식민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개지의 숭고 감정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작동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 '새로움' 자체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주관화의 과정일뿐더러 '숭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한 심미적 주관화였다. 근대적 식민화란 그 식민화의 정치적 성격을 망각하는 주관적 변형을 통해 대상을 숭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17]

서정주의 만주 경험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식민지적 숭고를 말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적 숭고란, 식민지라는 대상을 인식 주관이 자신의 의식 내부로 수용하여 처리하는 미적 범주이다. 그것은 포괄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형을 감행한다. 이때 이 변형이 대상 자체를 왜곡하는 일종의 폭력이라면, 모든 숭고론은 고진이 말하듯이 폭력에 해당한다. 그런

16) 칸트는 '숭고한 것'을 '미적인 것'과 구분한 후 미적인 것이 대상의 한정된 형식에 관련되고 숭고한 것이 대상의 무한정한 형식에 관련되다고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구분도 덧붙인다. "이것(미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촉진하는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매력이나 유희하는 상상력과 합일할 수 있지만, 저것(즉 숭고의 감정)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생기는 쾌이다. 독, 이 쾌는 생명력들이 일순간 저지되어 있다가 곧장 위이어 한층 더 강화되어 범람하는 감정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감동으로서, 상상력의 활동에서 유희가 아니라 엄숙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매력과는 합일할 수 없다. 마음은 대상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언제나 다시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숭고한 것에서 흡족은 적극적인 쾌가 아니라, 오히려 경탄 내지는 존경을 함유하며, 다시말해 소극적 쾌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I.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비판』, 아카넷, 2009, 249쪽.

17) 박수연, 「신지방주의와 향토」,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98쪽.

데 폭력에 대한 반대가 비폭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억압적 폭력에 대해 그 폭력을 무화하려는 반폭력의 문제설정이 필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식민지의 향토에 대한 생각이 일종의 숭고미로 나타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는 그 숭고가 억압적인가 아니며 해방적인가 하는 점이다. 숭고가 주어진 폭력에 대한 반폭력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면, 식민지적 숭고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정주는 만주의 새로운 풍경에서 식민지 조선보다 더한 식민지의 참담을 목격했다. "이거 참 만주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 안에서보다는 또 달리 무서운 곳이었다"(「만주 광야에서」)라고 쓰는 심리가 그것이다. 아마도, 현실적 호구 방책을 세우는 일과 함께 오족협화의 이상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그의 만주 이주가, 다른 사람들이 침울하게 열광하기도 했던 사태와 달리, 참담과 식민지적 숭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이런 주관적 직관 작용이 있다.

이것을 풍경과 숭고라고 이해하기 위해 만주에서 씌어진 세 편의 시에 나오는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 「만주에서」(『인문평론』, 1941. 2), 「문들레꽃」(『삼천리』, 1941. 4)[18], 그리고 발표되지 않은 「無題」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시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시어가 '하늘'이다. "참 이것은 너무 많은 하눌입니다."(「만주에서」) "네 눈썹을 적시우는 용천의 하눌밑에"(「문들레꽃」) "오 미치게/짙푸른 하늘"(「무제」)이 그것이다. 이 "하늘"은 곧 만주의 날라리 소리가 울려 퍼지거나 만주 여인의 장송곡 소리가 번져오는 대기이기도 할 것이고 따라서 만주 전체의 풍경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늘이란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자연적 대상 자체이다. 서정주가 만주에서 그 자신 아주 "딱한 곳에서 쓴 딱한 시'라고 부연하고 있는 세 편의 시의 공통된 낯선 경험이 곧 하늘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숭고의 경험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숭고란 압도적 대상에 대한

18) 「문들레꽃」은 뒤에 제목이 「멈둘레꽃」(『귀촉도』)으로, 다시 「민들레꽃」(『나의 문학적 자서전』으로 바뀐다. 애초에 발표될 때에는 시의 연구분이 없었으나 『귀촉도』 수록시에 4연으로 나뉘고, 2행은 "네 눈썹을 적시우는 용천의 하눌밑에"였으나 「민들레꽃」으로 제목이 바뀔 때 "네 눈썹을 적시우는 문둥병의 하눌밑에"로 바뀐다.

직관적 수용이기는 하지만, 의미화 이전의 감각적 수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인가 부재하는 상태의 미학화라고 할 수 있다.[19]

만주의 처참을 식민지적 고통으로 바꿔 사유하지 못한 채 주로 시의 미학적 언어와 훗날의 그늘 없는 풍류로 바꿔놓은 서정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가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그 주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참담을 식민지적 숭고로 바꿔놓는 일이었다. 이 정황이야말로 서정주의 만주경험에 따른 식민지의 풍경론이 숭고의 이념과 결합되어 더 많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임에 틀림없다.

특히 그의 「만주에서」의 마지막 연에 "바로 말하면 하르삔市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네도 나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처음의 복숭아꽃 내음새도 말소리도, 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씌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 전체의 면모는 이렇다.

> 참 이것은 너무 많은 하눌입니다. 내가 달린 들 어데를 가겠습니까. 紅布와 같이 미치기는 쉬웁습니다. 몇 千年을, 오- 몇 千年을 혼자서 놀고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
> 鍾보다는 차라리 북이 있습니다. 이는 멀리도 안들리는 어쩔 수도 없는 奢侈입니까. 마지막 부를 이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네는 나보고, 나는 자네보고 웃어야 하는 것입니까.
>
> 바로 말하면 하르삔市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네도 나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처음 복숭아꽃 내음새도, 말소리도 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 —「滿洲에서」 전문

19) 이 시기 이후의 서정주의 시에서 '하늘'이 차지하는 위상을 김범부의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살펴본 글은 홍용희, 「전통지향성의 시적 추구와 대동아공영권」, 『한국문학연구』 34, 2008 참조.

시는 오랜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을 지켜온 존재, 그리고 그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의미 부재'의 정황을 노래한다. 낯선 풍경의 압도적 힘 앞에서, 시적 주체는 무능력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미학화하고 있다. 하늘은 너무 커 헤아릴 수 없고, 주체는 달아날 곳도 없어 다만 미칠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름도 없고 웃음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 속에 놓인 주체의 무력감이란 참담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주체가 대상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질문뿐이다. 이것이 만주의 풍경에 처한 서정주의 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갑자기 3연에서 제시되는 만주의 지명 하나에 주목해야 한다. "하르삔"이 그것이다.

왜 시인은 "바로 말하면 하르삔市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썼을까? 헤아릴 수 없는 압도적 힘의 만주 풍경을 노래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는 도시명 "하르삔"을 시적 주체와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시인의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 이 시가 씌어질 때 서정주는 25세 청년이었다. 당시의 중국 정세 속에서 "하르삔"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서정주의 청소년 시절과 연관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광주학생운동과 연관된 중앙고보 학생시위의 주모자로 체포되었던 '얼치기 사회주의자' 서정주는 고향집으로 훈방되었다가 1931년 서울로 올라온다. 그의 수중에는 이웃집에서 땅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그의 부모에게 맡겨 놓았던 돈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독립군들이 있는 만주로 가기 위한 여비에 쓸 계획이었다. 그것을 막아선 것은 고리끼의 사회주의리얼리즘 소설이었다. 그 소설과 같은 단순한 세계 설명으로는 인생의 복잡한 고뇌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는 사회주의의 초입에 들어섰다가 물러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에피소드는 당시로부터 9년 전의 일이다. 생명파적 삶의 극단까지 경험한 서정주를, 더구나 만주의 시국적 이념이든 혁명 이념이든 그 이념을 보기 이전에 만주의 참담한 풍경을 먼저 보고 주관적 숭고의

미학화로 빠져들어간 서정주를 사회주의자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삶과 시대적 이념이 탈서구적이고 탈자본주의적인 어떤 것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있다. 이는 그의 초기의 시편들이 증명하는 바이고, 「램보오의 두개골」「바다」「풀밭에 누어서」가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저 오랜 기억의 축적 속에서 연소되고 있었을 만주 이미지가 탈주의 대상적 장소로 구체화되었을 때, 관념적 급진성에 불과했을지라도 서정주는 식민지적 현실을 거부하고 벗어나려는 지향성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만주행은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징후적 저항이든 만주 오족협화론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것이든 조선의 현실을 떠나는 반현실적 행위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1940년이나 1941년에 서정주가 호명하고 있는 그 만주의 한 도시 하얼빈은 맑스주의자들의 집결지였다. 그것은 문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에 따르면 그곳은 원래 '공산당과의 관련을 유지하면서 문학활동이 펼쳐졌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다.[20] 1932년 1월 공산당 만주성위원회가 하얼빈으로 옮긴 후 작가들은 다양한 반만항일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30년대 후반이 되면서 잘 정비된 만주국의 공산당 탄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1938년 2월 12일의 동아일보는 1면 전체에 걸쳐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만주성공산당위원회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검거된 인원만 500명 정도였고, 이 사건이 보도되기 10개월 전인 1937년 4월부터 검거가 시작되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이 검거는 이후로도 계속되어서 동북항일연군을 지

20) 만주국 속에 있는 하얼빈의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하얼빈은 일찍부터 중국 내지와 소련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계점이었다. 또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로 수입된 하나의 비밀 통로였다. … 중략 … 中東鐵道를 중심으로 소련의 노동자운동, 내지 코민테른도 모두 이곳에서 일련의 활동을 했고, 일정정도의 영향을 주어 왔다. 덧붙여 당시 심양이 막 함락되었으므로 중공만주성위원회는 하얼빈으로 옮겨갔다. 任國楨, 楊靖宇와 같은 혁명선구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산당은 청년들에서 비교적 큰 감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 최정옥 역, 「이색적인 하얼빈 문단」,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136쪽 참조.

칭하는 '비적'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탄압이 진행되었다.[21] 그 결과 서정주가 만주에서 기대했던 하얼빈이라는 도시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22] 더구나 1940년 11월에는 특무로 오해받는 사람들의 문학적 침입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1941년에는 하얼빈 좌익문학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서정주가 만주에 있을 때 하얼빈은 실제로는 거의 적막해진 도시였다. 문학 활동은 죽어 있었다.[23] 예민한 청년시인 서정주가 그것을 간파했을 가능성이 위 시에는 충분히 나타난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얼빈'은 식민주의자들의 신도시로 재구성되기도 하고 한국 친일 작가들의 주요 방문지이자 초점화 대상이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곳은 관찰자들의 해석을 기다리는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 그에 대해 "하르삔市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쓰는 서정주의 심리가 의미심장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것은 탈주의 이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식민주의의 이념과 관련해서도 그럴 것이다. 그는 요컨대 만주에 모종의 이념으로 이주했지만, 아무 가능성도 타진하지 못한 채 귀국해야 했다. 그는 절망의 심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르삔은 없었다'고 말해야만 했던 서정주의 심리적 기울기이다. 하얼빈이 없었다고, 굳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시의 한 구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하얼빈이 이미 언젠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

---

21) 신문기사는 이렇다. "(만주사변 이후) 동북항일연합군이 생겨서 악질의 비적 행위를 개시하는 외에 열차 사고와 철도건설 방해를 하고 잇는데 하르빈의 '憲警' 당국은 그 실체를 탐지하고 일만 헌경은 질푸신뢰적 검거행동을 개시하야 강덕원년 4월 7일 '하르빈' 시내의 일제 검거에 착수하고 현재의 濱綏線 濱北線과 雙城, 新京, 奉天, 台安 등의 각지에 간부급 40여 명을 검거하고 '하르빈' 지방법원 환 검찰관의 손에 의하야 심리재단한 결과 당주석 胡彬 이하 40여 병이 潛行懲治叛徒法에 의하야 중형에 처하엿다" 『동아일보』, 1938. 2. 12. 참조

22) 당시에 濱江省에 살면서 하얼빈의 만주국 협화회에 근무했던 유치환이 그의 시 「수」를 창작하고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별칭인 '비적'을 국법의 이름으로 비난한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23)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 崔晶玉 역, 「이색적인 하얼빈 문단」,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亦樂, 2008 참조.

주체의 심리적 운동이 빚어낸 결과이다. '지금 무엇인가가 없다'는 말은 원래 없었던 것에 대한 확인일 수 없다. 그것은 있었던 것이 없음에 대한 절망적 확인이다. 그러므로 하얼빈이 없다는 말은 그것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던 주체의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얼빈이 해방의 희망이거나 해방 자체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고 서정주는 쓰고 있다. 공교롭게도 하얼빈의 해방 운동은 日滿 憲警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후 그는 친일의 세계로 접어든다. 그래서 그에게 시국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시를 잘 쓰면 되는 것이었다. 친일시인으로서 또 국가 권력의 내면화에 기반한 미학주의자로서, 오직 밝고 환한 신명의 세계로 점철되었던 시인이 이렇게 탄생했다. 그에게는 역사적 하얼빈이 없었으니, 실제로 괴멸되어 가는 해방운동과 그 주체들의 변질을 묘사하는 것은 서정주의 「만주에서」라는 시 만이 아니었다. 하얼빈의 괴멸과 식민지 역사의 몰락을 표현하는 것은 신문과 잡지 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갔던 주체들의 현실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 변질과 낯선 풍경이 압도적으로 주어진 상태를 주관화할 때, 바로 그것이 대상에 대한 주관화로서의 식민주의적 숭고의 한 모습이다.

서정주는 이후 귀향을 택했다. 이때의 심정을 어느 정도의 희화화를 감수하면서 묘사한 시는 「뜻 아니한 인기와 밥」(『팔할이 바람』, 1988)이다.

> 1941년 정월의 그 을씨년스럽게 칩기만 했던
> 간도 용정촌의 한겨울날 해질녘에는
> '나도 장백산맥에 마적이나 되어버릴까'
> 문득 그런 생각도 안 났던 건 아니었지만,
> 눈이 빠지게 나를 기다릴 처자식을 생각하니
> 그것도 그럴 수 없어
> 또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짐을 꾸렸다.
> 이때 여기 월급 사십오원으로는

처자와 세 식구가 살아남기 어려웠고,
그보다도 그 만주 날라리의 한정 없는 죽음이 빚어내고 있는
구중중한 허무의 瘴氣를 더 견디기가 어려워서였다.
—「뜻 아니한 인기와 밥」 부분

이렇게 해서 서정주는 그 스스로 법과 제도에 구속될 수밖에 없을 귀향의 길을 택한다. 의미있는 진술 하나가 있는데, "'나도 장백산맥에 마적이나 되어버릴까'/문득 그런 생각도 안 났던 건 아니었"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장백산맥의 마적이 된다는 것은 곧 김일성부대원이 된다는 사실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4] 그러므로 이 구절이야말로 하얼빈에 대해 서정주가 품었던 생각의 한 면을 알려주는 진술이다. 물론 그는 그 생각을 실현할 수도 없었고 계속 꿈을 꾸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귀향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벤야민의 구분법을 빌려 말한다면, 세상에는 언제나 법제정적 삶과 법보존적 삶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귀향 자체가 아니다. '랭보의 귀향'을 비난하던 저 청춘의 이념을 뒤로 하고 한 시인이 귀향을 택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만주의 허무를 일종의 '풍토병적 瘴氣'라고 지칭하는 그의 시선을 '식민지적 숭고'에 연결되는 심미적 주관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식민지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인의 시선인데, 서정주의 귀향은 만주를 그렇게 주관화한 후 조선에서의 그의 행적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만주에서 조선으로의 단순한 귀향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서정주가 이후에 펼쳐 보인 굴곡 많은 생애 전체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만주 체험과 그 결과를 안고 있는 한국시의 한 전형이 '하얼빈을 부재하도록 만든' 국가권력을 내면화하면서 맞게 될 시공간으로의 잠입이기도 했다.

24) 장백산의 김일성 마적부대에 대해서는 洛陽客, 「귀순한 여당원과 김일성」, 『삼천리』, 1938, 11.

Ⅳ. 귀향의 내면과 국가

서정주가 자신의 친일을 시국에 대한 파악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은 찰나와 같은 것이되 당시의 일반적 정치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망 같은 것이었으리라.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특별한 정보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승리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허위적 신념도 작용하고 있었을 터인데, 서정주가 조선인 출신 성분의 시베리아 총독을 희망했던 것만큼이나 당대의 동양은 일본의 전쟁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25] 그렇다면, 서정주가 만주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것은 실은 조선이 아니라 승리한 일본제국으로의 귀환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문학적으로는 상징주의적 전복과 탈현실의 세계에서 국가와 현실에 순응하는 미학으로의 귀속이었다. 좀더 분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서정주의 언어적 발성법이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때이다. 그의 시는 상징적 열망과 비약의 언어에서 해사체로 나아가고 거기에 고유 리듬의 문법이 결합되는 쪽으로 움직여 간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공유되던 문학적 발성법을 당대의 현실 속에서 되살리는 것이기도 했다. 징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시 「바다」가 탈아시아의 맥락을 가져옴에 비해 「풀밭에 누어서」가 아시아 내부의 자기순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의 지적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의미화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적 아시아로의 출발과 귀환이었던 것이다.

---

25) 이런 기대는 조선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한 오키나와 병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이 대동아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 오키나와인은 일본인과 꼭같은 대우를 받을 거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도 일본으로 가서 화기애애하게 살 수 있을 게야.”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林성모 역,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29쪽 참조.

그 이후 서정주의 친일 문학이 펼쳐진다. 그런데 서정주의 일제말기 문학은 그의 전체 문학을 규정하고 있는 '영생론'의 뿌리이다.[26] 그의 영생관이 서구 모더니즘의 세례로부터 벗어나 황국적 동양주의를 형성할 즈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론 자체가 배타주의의 산물이며, 결국 그것의 이념적 표현은 남북 이념 대결의 미학적 표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27] 이 영생론이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선택이, 요컨대 그것의 은유와 환유가 동일하다는 데서 반증된다.[28] 그의 관련 진술에서 주목할 부분은 문학적 전통을 구성하는 구체적 실례를 드는 곳이다. '선대-나-아들-손자'로 이어지는 그 전통의 구성방식이 그렇다.[29] 동일한 사례를 동일한 언어로 표현하는 그 심리가 더구나 언어를 업으로 삼는 시인의 그것이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서정주의 문학적 · 미학적 인식구조가 일제말기의 그것과 현대의 그것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학적 인식의 세부를 좀더 넓혀 분석해보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친일 문건의 출발편인 「시의 이야기-주로 국민시가에 대하여」(『매일신보』, 1942. 7,13~17)만을 살펴보겠다. 당시의 그의 문학적 심경이 비교적 논리적인 언어로 피력되고 있기 때문이다.[30]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26) 이에 대해서는 박수연, 「순수 미학주의의 두 얼굴-서정주의의 경우」, 『국민, 미, 전체주의』, 열린길, 2012 참조.

27) 북한 동포에 대한 배타적 추방 인식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하여」, 『문학정신』 1988.11 참조

28) ①일제말기의 국민 전통론은 "**아들과 손자의 대에는 또한 넉넉히 한 개의 전통이 될 수 있는 문학**의 창건을 이름이라고 생각하였다."에서(「시의 이야기」, 『매일신보』 1942, 7, 13~17) ②영원성론에 대한 그의 현대적 주장을 동일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나와 내 자식들과 손자들이 내 선대(先代)가 살아온 길을 이어서 별다른 실수 없이 살아나갈 것인가**?" (「영생에 대하여」, 『문학정신』, 1988, 11 ; 이상 강조는 인용자)이다.

29) 이런 문제점의 분석에 대해서는 박수연, 앞의 책 참조.

30) 친일문건에 나타난 사유구조를 살펴보는 일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이야말로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을 선명하게 유지하는 전형적인 태도의 소산이다. 친일문건은 일제의 억압을 대변하기 때문에 민족문학 논의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그것일 것이다.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을 벗

이루어져 있다.

> 1)독창성을 주장해왔던 태도 비판를 비판하고, 보편과 일반성 추구
> 2)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한 문학의 난점을 국민문학으로 돌파
> 3)국민시가란 재래의 시가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이고, 전통의 계승 속에서 우러나는 전체의 언어공작이며, 민중 전체에게 주어야 할 시가(민중은 새로운 문화의 창성기에는 교화의 대상)
> 4)국민시인의 사례 : 괴테, 푸쉬킨, 이시가와 다쿠보쿠 등 각국의 유산으로 기념비적 문학을 세운 인물, 그리고 세계의 문학 유산을 섭렵하고 본국의 문학으로 돌아온 인물
> 5)동아의 문화는 동아공영권을 형성하고, 중국의 고전, 황국의 전적, 반도의 옛것으로 구성됨.
> 6)취재야 아무데서 하여도 좋은 것이며, 자기가 자기의 작품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
> 7)시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며, 사상만 속에 있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은 것이라는 유치한 생각을 넘어서야 하는 언어해조.

글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다. 중요 개념들이 있는데, 국민문학, 보편성, 동양, 시의 언어와 같은 것들이다. 개성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충돌을 경유하면서 국가적 임무에 복무하는 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진술이 그의 당대의 시적 내면이라면, 이것은 그의 해방공간의 행적과 그 이후의 권력적 행보를 예감하기에 이미 충분한 것이다. 그것은 친권력적이고 국가주의적 태도의 전형적 미학화이다.

우선 서정주의 국민시가 교육론은 단순한 훈육론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이를 실러의 미적 국가론과 연결시켜볼 수도 있겠다. 실러의

어나야 한다는 것은 제국의 논리를 외면함으로써 그 이분법을 무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억압과 저항의 상호 중첩적이며 자기 중층적인 논리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미적 가상-이상 국가’론을 국가주의의 그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는 분명히 국가주의의 지배와는 다른 이상 국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당시의 기계적 국가 소멸론에 기울어 있는 편이었다.[31] 이러한 실러의 ‘미적 교육론-국가론’과 대비하면, 서정주의 국가론은 자기 모순적이다. 미적 완성을 꾀하는 것은 경험적 개인을 앞세우는 것이지만, 전체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은 이념적 국가를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근본적인가는 애매하다. 보편성을 강조하고 국민시를 주장할 때 그는 국가를 앞세우는 것이지만, 시의 언어적 성격을 강조할 때에는 시인 개인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렇다는 점에서 그는 다만 그 둘을 병렬시키고 있을 뿐이다.

실러에게는 미적 교육과 국가가 아래로부터의 동의를 얻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을 지양하는 국가(이성에 의한 감성의 지배)’와 ‘개인이 그 자체 형성하는 국가(이성과 감성의 결합)’를 구분하고 후자를 아래로부터의 동의에 의한 국가라고 규정한다. 이는 프랑스 혁명을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그 실패를 예감하는 실러의 입론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정주에게 ‘미적 교육-국가’는 위로부터의 지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시는 민중 전체에게 주어져야 할 시이지만, “그것은 부질없이 민중의 구미만을 맞추는 저속한 것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이다. 민중의 대부분은 더구나 새로운 문화의 창성기에 있어서는 구미를 맞추기 전에 먼저 지도해야 할 존재인 까닭이다.”라고 그는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이 그의 친일의 동기가 지닌 모순과 유사한 것이라면, 이 모순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는 당대 현실의 정치적 국면에 대한 갈등적 표현이

31) 실러는 교육의 가능성을 기계적, 미적, 정치적 가능성으로 구분하고, 기계적 교육을 소재에 폭력을 가하되 전체를 위해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적 교육은 부분의 미적 가상을 통한 자율성을, 정치적 교육은 미적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 자율성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실러의 모든 논의는 프리드리히 실러, 안인호 역, 『미학편지-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이론』, 휴먼아트, 2012에서 가져온 것이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포스트식민주의론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일 터인데, 이 의외의 정치적 전화를 '식민지적 공공성'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미묘하게 정치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 미묘하다고 말한 것은 서정주의 이 시적 진술이 식민지 권력의 공공적 언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민지 권력의 언설 공간이란 모든 공공적 행위와 논의가 바로 그 식민지 권력의 유지 보수에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식민지 권력의 헤게모니가 관철되어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친일문학의 동화와 이화의 중층성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 모순적 측면이라면, 그것의 정치적-국가적-공공적 영역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러가 나누어 살펴보았던 바의 바로 그 현실적 측면이다. 무의식의 정치가 아니라 현실의 정치가 문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친일문학의 미학적 담론을 식민지적 공공성으로 논의할 수 있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은 그러므로 그것의 국가론적 사유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임종국 선생의 국민국가론을 읽어내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다. 주의해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당대의 현실과 어떤 맥락적 의미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문학은 국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만난다.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여러 형태를 현실적 국면 속에서 민주적으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문제일 것이다. 서정주의 「시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분석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그의 만주에서의 귀환이 어떤 문학적 귀결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기 위해서이다. 당겨 말하면, 서정주는 만주에서의 식민지적 숭고의 경험을 국가-권력에 대한 맹목으로 바꿔놓은 경우였다. 이것은 일제말이라는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맹목은 그의 평생에 걸친 태도였다. 그리고 그 맹목적 대상의 정점에 국가가 있었다. 서정주에게 그것이 문학과 국가의 만남을 전형화하는 한가지 모습이었다면, 그에게 그 모습이 형성되는 시기는 바로 그의 만주 이주 시기일 것이다. 그는 이상을 지향했고, 식민지적 숭고의 주관화와 함께 또다

른 식민지적 현실로 돌아왔으며, 억압적 국가의 미학화에 복무했다. 그의 이 행보에 '국가'의 문제가 개입하는 바로 그 방식을 이미 유치환의 「首」는 준열한 국법의 문제로 치환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서정주의 일제말의 시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서정주는 하필이면 괴멸되는 하얼빈의 시기에 만주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그 압도적 낯섬과 허무-절망 앞에서 그는 일본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셈이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한계였을까? 그렇다면, 그보다 더 늦게 더 파괴되었던 북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일본 제국 외부로의 망명을 결심했던 김사량의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식민지적 숭고가 참담을 넘어서는 현실 주관화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주관적 체제선택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 반대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김재용,「서정주-전도된 오리엔탈리즘」,『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洛陽客,「귀순한 여당원과 김일성」,『삼천리』, 1938, 11.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 임성모 역,『전장의 기억』, 이산, 2002.

박수연,「신지방주의와 향토」,『한국근대문학연구』25, 2012.

서정주,「만주광야에서」,『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

서정주,「續畢波羅樹秒」,『동아일보』, 1935. 11. 5.

서정주,「시의 이야기」,『매일신보』1942, 7, 13～17.

서정주,「영생에 대하여」,『문학정신』1988.11.

서정주,「유산상속과 그 뒤에 온 것」,『나의 문학적 자서전』, 민음사, 1975.

서정주,「풀밭에 누어서」,『비판』, 1939.6.

서정주,『서정주 전집2』, 민음사, 1994.

오카다 히데키, 최정옥 역,「이색적인 하얼빈 문단」,『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윤은경,「유치환, 서정주의 만주체험과 시대의식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윤휘탁,『만주국 :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혜안, 2013.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판단력 비판』, 아카넷, 2009.

임학수,「북지견문록」,『문장』, 1939.7.

최현식,「서정주와 만주」,『미네르바』2010년 여름호.

최현식,『서정주 시의 근대와 반근대』, 소명출판, 2003.

프리드리히 실러, 안인호 역,『미학편지-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실러의 미학이론』, 휴먼아트, 2012.

홍용희,「전통지향성의 시적 추구와 대동아공영권」,『한국문학연구』34, 2008.

〈Abstract〉

Depression and Sublimity

Sooyeon Park
(Chungnam University)

This paper based on quotes Seo Jeongju's impact of his Manchuria experience. Seo migrated to Manchuria in the autumn of 1940 and returned home in the spring of 1941. His experience is prominent in colonialistic gaze. The eyes is to explain the concept of the colonial sublimity in this paper. He was focused on the city of Harbin, the fate of the city was also the fate of the revolution soon. Despair in Manchuria, after the return to the chosun, Seo was transformed into a pro-japanese poet. He was admitted to navigate the personal aesthetics, but despair in the Manchuria was to let him accept the logic of the state.

Keywords : Seo Jeongju, Manchuria, sublime, Colonial, State, Aesthetics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